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할까

'5년에서 10년으로' 새누리당 6월 추진 野大에서 통과 '주목'

20대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던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 등도 향후 정치권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에 따라 당장 특허기간 10년 연장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관세법을 현행처럼 만들어놓는 것이 야당 측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홍준하 의원 등은 대기업체 면세사업 복과점을



서울 시내 면세점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막기 위해 5년마다 특허를 다시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홍 의원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발의를 한 김현미, 안민석, 이인영, 인재근 의원 등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부가 신규로 특허권을 발급하는데 야당의 논치를 봐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신규 특허발급은 특허기간 연장과는 달리 관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특정 기업에 신규로 특허를 발급하기 위해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달 중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정

부가 발표한다고 시기를 말했다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이라며 "정부의 발표 이후 면세점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워커히면세점은 특허 종료 기한이 오는 5월16일이다. 또 6월30일에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내놓을 경우 워커히와 롯데 월드타워점은 기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신규 특허권을 내놓을 경우 해당 업체들은 만료되는 특허 시기까지 영업을 한 뒤 영업을 잠시 쉬면서 재개장을 준비하면 된다. 이 경우 워커히와 롯데 월드타워점 모두 7~8월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성주 기자

부안농어촌공, 농지은행사업 접수

농업인에 128억 지원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농지은행사업비 128억원을 확보하여 영농확대 및 은퇴를 원하는 농업인의 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

농지은행사업은 전업농이 농지(전·답) 매입 시 공사로부터 평당 35,000원, 연리 1% 이율로 융자받아 15~30년 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농지매매사업과,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공사에 5~10년 간 임대해 총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등이 있다.

김병수 지사장(사진)은 "올해 영



농규모화사업에 69억 원 경영희생지원사업 39억 원, 농지매입비축사업 18억 원 등을 지원하여 전문화된 정예 전업농을 육성

해 나갈 것이며, 고객에게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문의는 sms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상담(063-580-1017)으로 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오뚜기, 라면 방긋·카레 울상"

오뚜기가 올해 1분기 프리미엄 짬뽕라면 '진짬뽕'으로 라면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마케팅 비용이 라면에 집중되면서 카레 등 핵심 사업부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1분기 오뚜기의 연결 매출액은 4800억원,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2.8%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진짬뽕 성장에 힘입어 면류(당면·라면)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3.1% 성장한 150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홍세중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20억원을 올린 진짬뽕은 올

해 1분기 500억원 매출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점유율은 수량 기준 이미 25%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면에 마케팅 비용이 집중되면서 카레 등 기존 핵심 사업부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 연구원은 "건조식품류(카레·3분류) 매출은 4.2% 감소한 651억원, 양념소스류 매출액도 1.9%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케팅 비용이 라면에 집중되면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카레 점유율은 80.5%로 1.3% 하락했다. 3분류 점유율 역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성주 기자

국산맥주 3社 "수입맥주는 지속적 우려 요인"

매년 25%씩 늘고 있어 지난해 수입량 사상 최대

수입맥주의 고공 행진은 오비맥주, 하이트 롯데주류 등 국내 맥주 3사에 지속적인 우려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맥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산 맥주 판매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비해, 수입 맥주는 매년 25%씩 늘고 있다.

15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가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17만900톤, 수입액은 1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수입량은 43%, 수입액은 27% 늘어났다. 지난 2012년 수입액 73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년 만에 수입이 2배 급증했다.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FTA에 관세율이 내



려가면서 맥주 수입이 쉬워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입맥주의 고성장이 지속은 국산맥주에게 지속적으로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치호 이베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유흥용 체널

보다는 가정용 체널 위주로 수입맥주는 고성장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경쟁합리화 방안 도출될 필요성과 국내 맥주회사들의 신제품 등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도내 3월 고용률 증가

전년동월비 1.2p% 상승 실업률 2.8%로 1.2%p ↓

전북지역 3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북 고용률은 58.2%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2p% 상승했다.

3월 취업자수는 8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만1,000명이 증가했다.

또 경제활동인구도 9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2,000명(3.6%)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만3,000명으로 2만8,000명(5.6%), 여자는 38만 3,000명으로 3,000명(0.9%) 각각 증

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만4,000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1만2,000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6,000명)은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8,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00명), 제조업(2,000명)은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도 증가했다. 2016년 3월 실업률은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79.4%)이 증가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173.1%)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명(-5.4%)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 대비 1.2%p 상승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 건설공사 발주·수주 증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와 수주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도내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65건 대비 20% 증가했다.

또 발주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2,297억 원에서 3,129억 원으로 36.2%, 수주누계액은 1,909억 원에서 2,630억 원으로 37.8% 늘어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4분기 증가 요인을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윤재삼 사무처장은 "도내 건설업 활성화는 도와 시·군 지자체,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발주시 과도한 참가자격제한은 지양하고 대형공사의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공 전북본부, '서식지외보전 기관 방문의 날' 행사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 15일 '서식지외보전기관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관방문의 날 행사는 이강은 서식지외보전기관회장을 포함한 전국 24개의 서식지외보전기관 관계자 및 국립생태원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멸종위기식물 보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는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식물의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더욱 힘을 쏟고 고속도로본 생태복원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11번가, 4050 '아재시대' 기획전

11번가는 오는 17일까지 4050세대 중년 남성을 겨냥한 '아재시대'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웃도어 디지털카메라, 걸그룹앨범 등 4050세대 남성이 선호할만한 95종의 상품을 최대 64% 할인기에 판매한다.

'국민드론 시마 X5C'는 4만4900원부터, '트렉스타 2016년형 GTX 트레킹화'는 10만원부터, 'SK 설립 미니빔 UO 스마트빔 2'는 32만8000원부터 판매한다.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어울리는 바스로 퍼는 7만원부터, '썬이니 아쿠아폼즈 기프트세트'는 3만3900원, MUSSES 블루투스 헤드셋은 2만5500원부터 판매한다.

/이성주 기자

세계 최고 권위 미술랭 그린가이드에서 별 3개(★★★) 만점

봄에도 눈꽃을 볼수 있는 마이산 뱃꽃길로 놀러 오세요!!!

진안군